

『雷公炮炙論』에 관한 연구

— 炮制를 중심으로 —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河洪基·金基郁·朴炫局

A Study On 『LeiGongPaoZhiLun(雷公炮炙論)』

— Centering Of Processing Of Medicinal —

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Ha, Hong-ki · Kim, Ki-Wook, Park, Hyun-Kook

『*LeiGongPaoZhiLun*』 is the first pharmaceutical book, and there are various opinion on when *LeiXiao*(雷斅), the author lived. From the aspect of several data, it is appropriate most that *LeiXiao* live in the period of *Su*(隋) Dynasty, like *SuSong*(蘇頌) in the *Sung* Dynasty said, This book was not made at one time by one person. At the beginning, it was written by *LeiXiao* and the later generations enlarged to finish. The original of 『*LeiGongPaoZhiLun*』 disappeared already but a large amount of this book was quoted to 『*ZhengLeiBenCao*(證類本草)』 to be preserved.

The contents of 『*LeiGongPaoZhiLun*』 are the first professional book about processing of medicinal, in which most of processing of medicinal that is generally used today, is included and some methods are unused. Besides, the regulations of this book are specific, the range is broad, and theoretical frame is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This book has abundant contents, in which several processing of medicinal are written. There are 10 methods such as steaming(蒸法), boiling(煮法), baking(炮法), stir-frying(炒法), calcining(煨法), long time boiling(煉法), scorching(燒法), baking after wrapping(煨法), immersing(浸法), washing(洗法), flying(飛法), etc. How to remove some section that is not used for drug, how to separate according to medical use and region to be applied, how to smash, how to cut, how to dry, container for medicine, warning for making a prescription, time to make medicine and amount of medicine, how to distinguish superior and inferior and origin, how to make medicine partially, etc, are contained in this book.

The contents of 『*LeiGongPaoZhiLun*』 can be mixture of processing of medicinal of medical scientists and taoists. In conclusion, however, the effect by the later medical generations of 『*LeiGongPaoZhiLun*』 was not great on processing of medicinal. It stemmed from the difference of processing of medicinal in this very taoistic book that realistic difficulties were disregarded by taoists for training and practical purpose, treatment that is the reason that later medical generations used processing of medicinal. Consequently, there is no great relation between the development of processing of medicinal in the Sung Dynasty and this book.

『*LeiGongYaoXingFu*(雷公藥性賦)』 that was abundant in medical market in *Ming*(明) and *Qing*(清) period has no relation with 『*LeiGongPaoZhiLun*』 is kind of a distribution-purposed book that was mnge in or after Ming Dynasty. However, since a book that is said to be written by 'LiGao(李杲)'PaoZhihis nof a dijst borrowed and focus on a brief summery, it is not desirable for beginners to learn medical knowledge.

『*LeiGongPaoZhiLun*』 is the first pharmaceutical book and is a model to show how a science in the history of the herb medicine generated and developed and how such a book is changed and modified to make a change of value.

Key Words : *LeiGongPaoZhiLun*(雷公炮炙論), processing of medicinal, *LeiXiao*(雷斅)

I. 序論

한의학에서 포제는 “약재의 질과 치료 효능을 높이고 보관, 조제, 제제하는데 편리하게 할 목적으로, 1차가공을 한 약재를 다시 제정된 방법대로 가공 처리하는 방법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¹⁾

포제는 역대로 “炮炙”, “治削”, “修治”, “修事”, “修合”, “合和”, “修制” 등이라 명명하였다. 고대로부터 烹調術이 발전함에 따라 炮制術도 탄생하여 先秦 시기에 이르기까지 경험이 누적되었고, 馬王堆 漢墓에서 출토된 『*五十二病方*』 등에 약물의 淨選, 粉碎, 炮炙, 劑型 등에 관한 기제가 많이 나타난다. 漢代에 이르러 『*神農本草經*』 「*序錄*」에 언급된 내용으로 보면 약물의 炮制는 이론적인 단계에 진입하였고, 張仲景 『*傷寒雜病論*』에서의 炮制法은 주로 단미약의 포제에 진전이 있어 炮制의 목적성이 보다 명확하여 약성의 작용을 잘 발휘하고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함이었으며 후세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南北朝시기에 이르러 의학이 분가되기 시작하여 약물이 전문화되었고, 이후 梁·陶弘景의 『*本草經集注*』

에서 약물의 炮制, 劑量, 약제처리 등 기본적인 원칙을 언급하였으며, 唐·孫思邈의 『*千金要方*』에 「*合和篇*」을 두어 약물의 포제를 강조하였다.

六朝와 隋唐 사이에 『*雷公炮炙論*』이 출현하였고 이것이 宋代 唐慎微의 『*證類本草*』에 수제됨으로써 포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지만 道家적인 내용이 많아 실제 임상에서는 응용되지 못했다. 그러나 『*雷公炮炙論*』은 최초의 포제 전문서로서 本書에서 처음으로 ‘炮’와 ‘炙’를 합하여 하나의 단어가 되었고 아울러 전문적인 서명으로 삼았다. 재미있는 것은 그 책의 내용은 그 서명처럼 영향이 크지 않았고, 서명 또한 인명처럼 영향이 크지 않았다. 후세에 작자인 ‘雷斅’와 상고시대 黃帝의 신하인 ‘雷公’을 혼동한 사람도 있었다.²⁾ 明清 약학기는 ‘雷公炮制’를 정통적인 간판으로 삼지 않음이 없었는데, 그러나 실제 내용은 의가 포제법의 정통이 아니라 道家의 제약에 편향되었다.

오늘날 본초가 한의학의 분야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많다. 천연물에 대한 동서의 경계는 점차 모호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전통 본초를 말하자면 첫째 한의가 용약한 경험과 이론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고, 둘째 한의학의 이론에 따른 포제가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논자는 최초의 포제 전문서인 『*雷公炮炙論*』에 관한 연구를 정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 교신저자 : 박현국.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Email: parkhg@dongguk.ac.kr Tel:011-9530-8448
접수일(2011년 2월 14일), 수정일(2011년 2월 14일)
게재확정일(2011년 3월 21일)

1)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편. 한의학대사전. 서울. 정담. 1998. p.536.

2) 李秉書, 尹暢烈. 道敎醫學에 관한 研究. 대한원전외사학회지 vol. 6. 1992. p.264. “雷公; <素問>에 의하면 황제의 신하이다. 성은 뇌, 이름은 효. 의술에 능숙했다.”

II. 本論

1. 雷數의 생애

雷數는 통상 雷公이라 한다. 그의 생애는 알 수 없다. 그가 살았던 시대에 대한 논쟁이 많다. 雷數는 한의학 최초의 制藥 전문저작인 『雷公炮炙論』(이하 『炮炙論』이라 간칭)의 작자로 최초의 制藥전문가로 칭해진다.

雷數가 어느 시기 사람인지에 대한 설이 분분하여 上古人이라 하기도 하고 혹은 南北朝 劉宋시기 사람 혹은 隋代 사람 혹은 五代 後梁 사람 혹은 趙宋사람 등이라 하였다.

오늘날 대다수 학자는 雷數가 南北朝 劉宋시대 사람으로 본다. 李時珍는 “數는 劉宋시대 사람으로 자칭 內宛守國安正公이라 하였는데 아마 官名인 것 같다.”(『本草綱目』卷一「序例」)³⁾ 하였다.

『隋書經籍志』에서 『晁氏讀書志』를 인용하여 고증하길 “『雷公炮炙』三卷, 宋雷數撰, 胡洽重定, 述百藥性味, 炮熬煮炙之方, 其論多本乾寧晏先生⁴⁾이라 하였다. 胡洽은 원명이 胡道洽이고 南朝 齊나라 사람으로 高帝 蕭道成을 避諱하여 胡洽으로 고친 道士이다. 陶弘景이 增訂한 『肘後備急方』에 “胡洽水銀丸⁵⁾이 있는데, 이는 『隋書經籍志』에 저록된 “胡洽百病方⁶⁾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胡洽은 雷數와 함께 南北朝시대 사람으로 胡洽은 南齊때 사람이고 후대 사람들은 또한 雷數가 宋人이라 하여 雷氏가 앞이고 胡洽은 뒤임을 알 수 있어 雷數는 劉宋시대 사람이 된다.

明代 徐春甫는 雷公이 黃帝의 신하라 하였다. 그는 『古今醫統』에서 “太乙雷公, 按素問, 雷公爲黃帝臣, 姓雷名數, 善醫⁷⁾라 하였다. 오늘날 학자들은 雷數가 上古 黃帝의 신하라는 것은 오해이고 『素問』에 黃帝와

雷公의 문답이 있지만 당시 雷數가 있었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宋代 蘇頌은 雷數를 隋代 사람이라 하였다. 蘇頌은 北宋 仁宗시기 太常博士(1023~1056)를 지낸 丞相으로 과학자이고 嘉祐연간에 『嘉祐本草』의 편찬 작업에 참여하였으며 治平元年(1064)에 이르러 그가 주관하여 『圖經本草』를 만들었다. 이는 각지에서 정부에 보낸 약물그림을 상세히 조사하여 만든 것이다.

『證類本草』에서 『圖經本草』를 인용한 滑石條의 注에서 “雷數雖隋人, 觀其書, 乃有言唐以後藥名者, 或是後人增損之歟?”⁸⁾라 하였다. 蘇頌은 관직이 높고 또한 과학자이면서 약물전문가로 雷數가 같은 시대의 制藥전문가라면 그가 모를 리가 없는데, 그도 雷數를 隋代 사람이라 하였다. 『炮炙論』이 문헌에서 최초로 입증된 것은 唐慎微가 편집한 『經史證類本草』(宋徽宗 2년)이기 때문에 雷數가 宋代 이전 사람인 것을 확실하다. 『隋書經籍志』에서 雷數를 『本草經雷公集注』 4卷의 작자로 보아 수록하였기 때문에 蘇頌이 그를 隋代사람이라 하였다⁹⁾. 또한 이 밖에 雷數가 五代 後梁人이라는 학설이 있다¹⁰⁾.

唐代的 『千金要方』, 『外臺秘要』, 『新修本草』를 살펴 보면 모두 『炮炙論』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唐 이전에 이러한 제약 전문저작이 있었다면 이들 책에서 분명히 언급하였을 것이다. 또한 唐代的 方서를 수집한 일본 『醫心方』에도 『炮炙論』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唐 이전의 책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 밖에 『本草綱目』의 설에 의거하여 『炮炙論』은 대부분 ‘乾寧晏先生’에 바탕을 두었다. ‘乾寧’은 唐末 趙宋연호(894~899)이다. 乾寧晏의 이름을 고찰하면 郭晏封이고 唐代사람으로 『制伏草石論』 6卷¹¹⁾을 저작하였다.

3) 李時珍. 中國醫學大系 40卷 本草綱目. 서울. 麗江出版社. 1978. p.772*310.

4) 姚振宗. 續修四庫全書 卷915 隋書經籍志考證.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 . p.600.

5) 葛洪. 葛洪肘後備急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97.

6) 隋書. 北濟書隋書. 서울. 景仁文化社. 1983. p.687.

7) 徐春甫. 古今醫統大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3.

8) 唐慎微 編著.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서울. 大星文化社. 1983. p.89.

9) 尚志鈞. 中成藥研究. 1982(4). pp.45~46.

10) 范行准. 中華文史論叢 第六輯 兩漢三國南北朝隋唐醫方簡錄. 香港. 中華書局. 1965. p.341. 宋大仁、丘晨波. 浙江中醫雜誌. 1957(8). pp.31~32.

11) 范行准. 中華文史論叢 第六輯 兩漢三國南北朝隋唐醫方簡錄. 香港. 中華書局. 1965. p.325.

따라서 『雷公炮炙論』은 唐代 이후에 성서되었고 雷斅는 아마 趙宋사람임을 추측할 수 있다. 雷斅가 趙宋人이라는 설에 대해 어떤 학자는 반박하고 간접적으로 논거를 제시하였다¹²⁾.

『蜀本草』가 10세기(後蜀) 韓保升이 편저한 본초학으로 이는 宋代의 책이 아니며 『蜀本草』에서 『雷公炮炙論』의 서명을 인용(『證類本草』 卷十 鈎吻條)한 것으로 보아 『炮炙論』이 趙宋사람인 雷斅가 저작한 것이라면 『蜀本草』에서 인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沈括의 『夢溪筆談』에서 “古方書如炮炙論之類”¹³⁾라 하였는데, 沈括은 宋代 유명한 대학자로 학문이 깊은 北宋 神宗 연간 사람이다. 沈氏가 雷斅가 저작한 『炮炙論』이 古方書라 하였다면 『炮炙論』은 趙宋시기의 책이 아니고 雷斅 역시 趙宋시기 사람도 아니다.

‘岐黃’, ‘桐雷’, ‘神農’ 등 上古시대 전설에 의해 雷斅가 上古시기의 雷公이라는 근거가 부족하고 이는 上古의 성인을 탁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설도 탁명한 것으로 전설에서의 雷公과 『雷公炮炙論』의 작자인 雷公은 동명이인이다.

雷斅가 劉宋시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 宋代 趙希弁이 “雷公炮炙論三卷, 古宋雷斅撰, 胡洽重定”¹⁴⁾이라 한 것에 근거를 둔다. ‘胡洽重定’설에 의한다면 『炮炙論』은 劉宋시대의 책에 속해야 한다.

趙氏는 또한 “其論多本乾寧晏先生”¹⁵⁾이라 하였는데, 乾寧晏先生은 唐代 사람이고 劉宋 사람인 胡洽이 重定한 것이 唐代의 乾寧晏先生에 바탕을 둘 수는 없다. 趙希弁은 마지막으로 “稱內究守國安正公, 當是官名, 未詳”¹⁶⁾이라 하여 ‘未詳’이라고 한 것으로 보면 趙希弁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것 같다. 따라서 『炮炙論』이 劉宋시기의 책이라 하는 것은 의심스럽고 雷斅가 劉宋 사람이라는 것도 의문이다.

『蜀本草』에 『雷公炮炙論』의 서명을 인용한 것은 『蜀本草』가 宋代의 책이 아니고 10세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炮炙論』은 趙宋시기에 성서될 수 없고 작자인 雷斅 역시 趙宋사람일 수 없다.

敦煌에서 출토된 『五藏論』에 “雷公妙典, 咸述炮炙之宜”¹⁷⁾라 하였다. 朝鮮의 『醫方類聚』 卷四에 『五藏論』을 인용하여 “雷公妙典, 略述炮炙之宜; 弘景奇方, 備說根莖之用”¹⁸⁾이라 하여 『五藏論』에 기재된 것에 의거하여 추측하면 『雷公炮炙論』은 趙宋시기에 성서되지 않았을 뿐더러 五代 後梁시기에도 성서될 수 없고 唐 이전에 있었던 것이다. 宋代 蘇頌은 당시 유명한 대학자로 蘇頌이 雷斅가 隋代사람이라 말한 것이 믿을만하다.

2. 『雷公炮炙論』의 成書

原書는 이미 일실되었고 原序에서 “分上中下三卷, 有三百件名, 具陳于後”¹⁹⁾라 한 것을 고찰하면 300권은 300종이고 李時珍도 이 책이 “藥凡三百種”²⁰⁾이라 하였다. 張驥의 輯復本(施仲安校)에 의하면 全書는 上中下 3卷으로 나뉘고 上卷에 약물 60종, 中卷에 64종, 下卷에 61종, 모두 185종의 약물이 실려 있다.

『炮炙論』은 전인의 制藥 경험을 총결하여 약물의 여러 가지 加工炮制 방법을 기록하고, 輔料의 사용과 아울러 일정한 이론적인 체계(예를 들어 苦參條에서 苦參은 糯米로 泔浸하여 비린 냄새를 수면위로 떠오르게 한다고 하였음)를 언급하였다.

즉 약물의 성질에 따라 여러 가지 건조방법 및 약물 가공의 주의사항을 제시하고, 약물의 合制와 상응하는 ‘炮制’ 시간과 양의 규정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炮制’ 방법은 대부분 후세에서 따라 하였고, 몇몇 약물의 포제는 오늘날까지도 『炮炙論』에서 규정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12) 尙志鈞. 中成藥研究. 1982(4). p.46.

13) 沈括 撰 胡道靜 校注. 新校正夢溪筆談. 香港. 中華書局. 1987. p.328.

14) 嚴世藝 主編. 中國醫籍通考 卷1.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出版. 1990. p.1366.

15) 嚴世藝 主編. 中國醫籍通考 卷1.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出版. 1990. p.1366.

16) 嚴世藝 主編. 中國醫籍通考 卷1.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出版. 1990. p.1366.

17) 張仲景. 敦煌中醫藥全書. 北京. 中國古籍出版社. 1994. p.58.

18) 東醫學叢書 醫方類聚 卷1. 서울. 麗江出版社. 1991. p.152.

19) 南北朝. 雷斅.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8.

20) 李時珍. 中國醫學大系 40卷 本草綱目. 서울. 麗江出版社. 1978. p.772*310.

예를 들면, 蒸大黃, 地黃; 鹽水炒杜沖; 薑汁炙厚朴; 煨制肉豆寇; 煉蜂蜜; 煨制牡蠣, 礬石, 自然銅; 遠志, 牡丹皮去心; 酸棗仁, 杏仁, 桃仁, 郁李仁去皮尖; 杜沖, 肉桂, 厚朴去粗(栓)皮; 骨碎補去毛; 龍膽, 牛膝去蘆; 山茱萸去枝; 麻黃去節 등의 ‘炮制’ 방법이 지금까지 사용된다. 물론 이 책은 역사적인 한계로 어떤 약물의 구체적인 포제방법과禁忌에 미신적인 내용도 상당히 포함하고 있다.

雷斅의 생애와 더불어 『雷公炮炙論』의 성서연대에 대하여 논쟁이 많다. 劉宋시대의 책이라 하였지만 唐代 『千金方』과 『外臺秘要』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孫思邈의 말에 의하면 “諸經方用藥, 所有熬煉節度, 皆脚注之, 今方則不然, 于此篇具條之, 更不煩方下別注也”²¹⁾라 하여 즉 唐代 이전에는 약물의 포제와 가공방법에 관해서는 方에 따라 脚注 형식으로 기술하는 약물의 포제와 가공하는 전문서적과 기록방식이 없었다는 말이다.

孫氏는 唐代 저명한 의약학자로 약학방면에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 『炮炙論』이 있었다면 그가 알았을 것이다. 그의 저술은 신빙성이 있어 孫思邈이 포제 전문 서적을 보지 못했음을 알 수 있고, 더군다나 『炮炙論』이 있는 것을 몰랐다면 이 책이 당시 널리 유전되지 못했고 영향이 크지 않았거나 혹은 이 책의 초고만 있었고 아직 성서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宋代 蘇頌은 “雷斅가 隋代사람이지만 그 책을 보면 唐 이후의 약명이 있어 후인이 增損한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²²⁾고 하였다. 이러한 정황은 역대 古籍에 흔히 나타나는 것이다.

『大觀本草』에 실린 약물통계에 의하면 隋 이후의 약품에 속하는 것이 41종으로 즉 『新修本草』에서 20종, 『本草拾遺』에서 1종, 『蜀本草』에서 1종, 宋代 『開寶本草』에서 16종, 宋代 『嘉祐本草』에서 3종을 인용하였고, 『本草綱目』에서 증보한 25종 가운데에서도 明代

약품 1종을 잘못 증가시켰고 그 이후 저술도 잘못 증보시킨 것이 있다²³⁾.

대체로 이 책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사람을 거쳐 증보시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일시에 한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최초에는 雷斅가 저작하였고 후인이 증보시켜 점차 만들어진 것이다.

3. 『雷公炮炙論』의 流轉과 板本

1) 流轉

『雷公炮炙論』의 原書는 이미 일실되었고 『證類本草』에 이르러 비로소 이 책을 대량으로 인용하였다. 이 책이 유전된 정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敦煌에서 출토된 『五藏論』에 “雷公妙典, 咸述炮炙之宜”²⁴⁾라 기재되어 있다. 朝鮮의 『醫方類聚』 卷四에 『五藏論』을 인용하여 “뇌공의 고전에는 포하고 구하는 필요를 대략 말했고, 도홍경의 저서에는 뿌리와 줄기의 효능을 같이 말했다.”²⁵⁾고 하였다.

둘째, 唐代의 『千金要方』, 『外臺秘要』에는 이 책에 관한 기록이 없어 당시 이 책이 널리 유전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고 孫思邈은 이 책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셋째, 五代 『蜀本草』 ‘鉤吻’條에서 이 책의 서명을 인용하였다²⁶⁾.

넷째, 北宋 嘉祐 연간의 『本草圖經』 ‘滑石’條에서 『炮炙論』과 그 작자인 雷斅를 언급하였다²⁷⁾.

다섯째, 宋代 晁公武의 『郡齋讀書志』, 趙希弁의 『郡齋讀書後志』²⁸⁾²⁹⁾에 『炮炙論』을 기재하였다.

23) 宋大仁, 丘晨波. 浙江中醫雜誌. 1957(8). pp.31~32.

24) 張仲景. 敦煌中醫藥全書 五臟論. 北京. 中國古籍出版社. 1994. p.58.

25) 東醫學叢書 醫方類聚 卷1. 서울. 麗江出版社. 1991. p.152. “雷公妙典, 咸述炮炙之宜. 弘景奇方, 備說根莖之用”

26) 蘇頌. 本草圖經.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94. p.19.

27) 劉祖貽, 孫光榮 主編. 中國歷代名醫名述. 北京. 中醫古籍出版社出版. 2002. p.155.

28) 劉祖貽, 孫光榮 主編. 中國歷代名醫名述. 北京. 中醫古籍出版社出版. 2002. p.155.

29) 嚴世藝 主編. 中國醫籍通考 卷1.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出版. 1990. p.1366.

21) 孫思邈. 備急千金要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25.

22) 蘇頌. 本草圖經.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94. p.19. “然雷斅雖名隋人, 觀其書乃有言唐以後藥名者, 或者後人增損之歟”

여섯째, 宋代 沈括의 『夢溪筆談』에서 “古方書如炮炙論之類”³⁰⁾라 하였다.

일곱째, 宋 洪邁의 『容齋隨筆』 卷三에서 “『雷公炮炙論』載一藥而能治重疾, 今醫亦罕用之”³¹⁾라 하였다.

여덟째, 『證類本草』에서 처음으로 이 책을 대량으로 인용하였다. 이 책에서 ‘雷公曰’이라 한 것이 242條이고, 약명을 언급한 것이 277종으로 후세 여러 본초서에서 인용한 『炮炙論』의 내용은 모두 『證類本草』에서 인용한 것이다.

아홉째, 明, 淸시대에 여러 책에서 『雷公炮炙論』과 같은 것을 그들이 찬한 서명 속에 넣고 『炮炙論』의 조문을 그 책의 뒤에 적록하였다(正文 혹은 주체가 아니다).

㉓ 明·錢元治가 증보한 『雷公炮炙藥性解』는 실은 李仲梓의 『藥解』를 증보한 본으로 “雷公云”條 135條를 모아 넣었다.

㉔ 明·余應奎『太醫院補遺本草歌訣雷公炮炙』은 속표지(扉頁)에 李東垣先生輯『增補雷公炮炙藥性賦解』로 되어 있고 卷首에 “上饒滬東余應奎補遺”³²⁾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㉕ 明·俞汝溪의 『新刊雷公炮炙便覽』이 있다.

2) 판본

첫째, 雷公炮炙論三卷(藝文略), 雷斅撰, 佚.

둘째, 雷公炮炙方三卷(宋志), 雷斅撰(同上異名), 佚.

셋째, 雷公炮炙論三卷(綱目), 雷斅撰(李時珍의 말에 의하면 약물이 모두 300종이고 上中下 3권으로 되어 있다), 佚.

넷째, 雷公炮炙論三卷(張驥輯, 王興法校), 雷斅撰, 存.

다섯째, 雷公炮炙論三卷(張驥輯, 施仲安校), 雷斅撰, 存.

여섯째, 雷公炮炙論(尙志鈞輯, 油印本), 雷斅撰, 存.

4. 『雷公炮炙論』 ‘炮制’ 방법의 특징

여기에서 ‘炮制’ 방법을 규정하였는데, 자세하고 전문적이다. 그 특징은 대체로 이하 다섯 방면으로 나눌 수 있다.

30) 沈括 撰 胡道靜 校注. 新校正夢溪筆談. 香港. 中華書局. 1987. p.328.

31) 劉祖貽, 孫光榮 主編. 中國歷代名醫名述. 北京. 中醫古籍出版社出版. 2002. p.155.

32) 劉祖貽, 孫光榮 主編. 中國歷代名醫名述. 北京. 中醫古籍出版社出版. 2002. p.156.

1) ‘炮制’ 방법

『雷公炮炙論』은 炮制加工에 대한 최초의 전문저작으로 오늘날 통용되는 炮制方法이 거의 포함되어 있고, 또한 오늘날에는 사용되지 않는 방법 등 - 즉 燒法³³⁾, 童子便浸³⁴⁾ 혹은 煮³⁵⁾, 黃精汁塗炙³⁶⁾, 芭蕉水浸³⁷⁾, 香草湯浴³⁸⁾ - 도 있다.

2) 규정이 자세함

약물의 淨制, 분쇄, 건조, 주의사항 등에 대한 규정이 상세하다.

① 약재 淨制

청결하게 가공하라는 규정이 상세하고, 조목이 많아 오늘날 약재를 청결하게 하라는 규정과 거의 같다. 단지 ‘去蕊’條는 오늘날 청결하게 하는 규정에 나타나지 않는다.

② 약재의 분쇄

이 책에는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각종 방법을 거의 거론하였다. 예를 들어 “細銼”³⁹⁾, “搗細”⁴⁰⁾, “搗篩”⁴¹⁾, “杵如粉”⁴²⁾, “研”⁴³⁾, “醋磨”⁴⁴⁾, “擘破”⁴⁵⁾ 등이다.

33)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20.

34)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24.

35)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2.

36)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77. “取黃精自然汁塗之, 炙令幹方用”

37)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59.

38)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2. “香草煎湯浴過兩度”

39)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02.

40)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7.

41)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33.

42)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9.

43)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7.

44)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26.

45)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1, p.127, p.63, p.144.

③ 약재 건조

건조방법이 많이 기재되어 있어 “焙乾”⁴⁶⁾ 이외에 각종 자연 건조법을 모두 수록하였는데, 陰乾⁴⁷⁾, 曝乾⁴⁸⁾, 晒乾⁴⁹⁾, 日乾⁵⁰⁾, 風乾⁵¹⁾, 吹乾⁵²⁾, 懸令乾⁵³⁾ 등이다.

④ 주의사항

약물의 성질에 따라 “勿犯鐵並鉛”⁵⁴⁾, “勿令犯鐵器”⁵⁵⁾, “忌鐵器”⁵⁶⁾, “勿令犯風”⁵⁷⁾, “勿令見火”⁵⁸⁾ 등의 규정을 제시하였다.

⑤ 약물의 復制 방법

“朱砂”⁵⁹⁾, “雄黃”⁶⁰⁾ 등 여러 가지 약물의 復制 방법을 제출하였다.

3) 넓은 범위

『雷公炮炙論』에서는 ‘炮制’의 시간, 輔料의 용량, ‘炮制’의 火候, 일부 약재의 眞僞優劣 등을 언급하였다.

- 46)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88.
 47)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32.
 48)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86.
 49)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34.
 50)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08.
 51)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09, p.168.
 52)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09.
 53)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60.
 54)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93.
 55)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88.
 56)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01.
 57)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48.
 58)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38.
 59)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p.31~32.
 60)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p.51~52.

약재 가공영역에 있어서 상당히 광범하게 언급하였다.

- ① ‘炮制’ 시간과 양의 규정 : 포제시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日夜”⁶¹⁾ 혹은 “伏時”⁶²⁾라 하였다. 양의 응용에 있어서 “鑑”⁶³⁾, “斤”⁶⁴⁾, “兩”⁶⁵⁾의 계량단위를 썼다.
 ② 약재의 우열과 진위감별 : 일반적인 본초학과는 달리 약물의 性味、功能을 언급하지 않았고 일반 약재의 형태감별도 없으며 일부 약재에 대한 우열과 진위감별을 저록하였다. 예를 들어 牛黃, 鱉甲 등 여러 약물에 대해 우열과 진위감별을 하였다.
 ③ 火力의 구체적인 요구 : 화력은 약재를 가공하고 포제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이 책의 黃檗條 아래 ‘炮制’에 “文武火”⁶⁶⁾를 응용할 것을 언급하였다. 文火, 武火, 中火 등의 술어는 炮制加工 하는 사람이 화력을 묘사하는 전문 술어로 이러한 묘사방법은 오늘날까지 답습하고 있다.

4) 이론적인 틀을 처음으로 구비

覆盆子 항목 아래에 覆盆子를 水淘는 것은 “去黃葉并皮蒂”하기 위함이고⁶⁷⁾, 山茱萸 씨를 제거하는 것은 “核能滑精”하기 때문이고⁶⁸⁾, 蕪撥의 皮를 제거하는 것은 “免傷人肺, 令人上氣”⁶⁹⁾하기 위함이고, 苦蓼을 糯米泔浸하여 “腥穢氣, 并浮在水面上”⁷⁰⁾하게 함이고,

- 61)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92.
 62)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70.
 63)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50.
 64)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50.
 65)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50.
 66)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0.
 67)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65.
 68)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95.
 69)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23.

水銀을 制하는 목적은 ‘毒性’을 제거하기 위함⁷¹⁾이라는 등이다.

5) 전문적임

『雷公炮炙論』은 ‘炮制’ 전문서로 대부분 ‘炮制’ 방법, 輔料의 응용, ‘炮制’의 정도 및 주의사항을 기록하였다. 일반 본초학의 저록방식과는 달리 각 약물의 조항 아래 약물의 진위와 우열만을 기재하였고, 이 밖에 언급한 각종 내용은 모두 ‘炮制’와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는 포제 전문전적이다.

5. ‘炮制’ 方法

이 책은 내용이 풍부하고 여러 가지 포제방법을 기재하였다. 그 중에 蒸法(輔料를 가하여 蒸하는 것을 포함), 煮法(輔料를 가하여 煮하는 것을 포함), 炮法, 炒法(각종 輔料로 炒하는 것을 포함), 煨法, 煉法, 燒法, 煨法, 浸法(여러 가지 輔料로 浸하는 것), 洗法, 飛法 등 10여 가지 방법이 있고, 약물에 쓰이지 않는 부위를 제거, 약용 부위에 따라 분리, 분쇄하는 방법, 切制方法, 건조방법, 약을 담는 용기, ‘炮制’의 주의사항, ‘炮制’시간과 약의 양, 약재의 진위와 우열, 부분적인 炮炙이론 등이 있다.

1) 蒸法

蒸法에 관련된 기록은 매우 많다. 보료를 가하지 않은 清蒸(이후 蒸이라 간칭함)이 있고, 보료를 광범하게 이용하여 약물을 蒸制하는 것도 있는데 채용한 보료가 수십 종에 이른다. 그 중에 蒸과 酒蒸을 가장 광범하게 사용하였다.

蒸：黃芪⁷²⁾, 肉蓯蓉⁷³⁾, 酸棗仁⁷⁴⁾, 地黃⁷⁵⁾, 黃精⁷⁶⁾,

天門冬⁷⁷⁾, 山藥⁷⁸⁾, 菝葜子⁷⁹⁾, 蒲黃⁸⁰⁾, 苦參⁸¹⁾, 白薇⁸²⁾, 玄蔘⁸³⁾, 補骨脂⁸⁴⁾, 旋覆花⁸⁵⁾, 大黃⁸⁶⁾.

酒浸蒸：甘草⁸⁷⁾, 肉蓯蓉⁸⁸⁾, 地黃⁸⁹⁾, 天門冬⁹⁰⁾, 覆盆子⁹¹⁾, 蔓荊子⁹²⁾, 胡麻⁹³⁾, 牡丹皮⁹⁴⁾, 楮實⁹⁵⁾, 畢澄茄⁹⁶⁾, 仙茅⁹⁷⁾, 雷丸⁹⁸⁾, 詞子⁹⁹⁾, 棟實¹⁰⁰⁾, 蜀椒¹⁰¹⁾, 牽牛子¹⁰²⁾.

70)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84.
71)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6.
72)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14.
73)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74.
74)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59.

75)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31.
76)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16.
77)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41.
78)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28.
79)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50.
80)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65.
81)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84.
82)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64.
83)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51.
84)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14.
85)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61.
86)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34.
87)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55.
88)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p.274~275.
89)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31.
90)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41.
91)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65.
92)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56.
93)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63.
94)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43.
95)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48.
96)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11.
97)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60.

酥拌蒸 : 石斛¹⁰³),
 蜜浸蒸 : 五味子¹⁰⁴), 骨碎補¹⁰⁵), 芍藥¹⁰⁶), 密蒙花¹⁰⁷),
 補骨脂¹⁰⁸), 大黃¹⁰⁹),
 牛乳浸蒸 : 槐子¹¹⁰), 槐實¹¹¹), 木瓜¹¹²),
 嫩桑校條拌蒸 : 菖蒲¹¹³),
 淫羊霍拌蒸 : 獨活¹¹⁴),
 升麻葉蒸 : 猪苓¹¹⁵),
 車前草根蒸 : 防己¹¹⁶),
 生烏豆와 紫背天葵蒸 : 海藻¹¹⁷).

蠟水蒸 : 紫草¹¹⁸),
 甘草水蒸 : 常山¹¹⁹), 雷丸¹²⁰),
 細梅樹枝蒸 : 蘇木¹²¹),
 豆葉蒸 : 商陸¹²²).

2) 煮法

단순한 水煮와 보료를 가하는 煮가 있다. 煮法으로
 포제하는 약물이 蒸法으로 포제하는 약물보다 수적
 으로 많지는 않지만 언급된 보료의 종류로 보면 蒸法
 에서 언급한 보료의 종류 보다 적지 않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응용한 것은 清水煮, 鹽湯煮, 醋煮이다.

煮 : 琥珀¹²³), 雲母¹²⁴), 杏仁¹²⁵), 昆布¹²⁶), 密陀僧¹²⁷),
 細茶脚湯煮 : 代赭石¹²⁸),
 酒煮 : 蕪州烏蛇¹²⁹),
 漿水煮 : 辛夷¹³⁰), 珍珠¹³¹),
 鹽湯煮 : 薏苡仁¹³²), 牡蠣¹³³), 石決明¹³⁴), 蓖麻子¹³⁵).

- 98)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76.
 99)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12.
 100)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52.
 101)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55.
 102)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25.
 103)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73.
 104)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02.
 105)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97.
 106)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66.
 107)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62.
 108)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14.
 109)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34.
 110)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54.
 111)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54.
 112)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00.
 113)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86.
 114)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99.
 115)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75.
 116)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72.
 117)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74.

- 118)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22.
 119)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19.
 120)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76.
 121)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35.
 122)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10.
 123)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77.
 124)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2.
 125)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15.
 126)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71.
 127)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54.
 128)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4.
 129)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65.
 130)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59.
 131)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92.
 132)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62.

牡丹皮煮：滑石¹³⁶。
黑豆黃精煮：禹余糧¹³⁷。
醋煮(煎)：鹿角膠¹³⁸，自然銅¹³⁹，鱉甲(煎)¹⁴⁰。
童子便煮：鱉甲¹⁴¹。
生薑汁煮：寒水石¹⁴²。
竹葉煮：射干¹⁴³。

3) 炮法

炮法은 현대에는 많이 이용하지 않는 방법이다. 현재 '炮薑'에 약간 언급한 것 이외에 기타 약재에서는 炮法가공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책에서 채용한 炮法가공의 약재에는 甘草¹⁴⁴，貝母¹⁴⁵，附子¹⁴⁶，天雄¹⁴⁷이 있다.

4) 炒法

비교적 많이 사용한 포제방법으로 淸炒 이외에 7가지의 보료를 가하여 炒할 것이 있다. 언급할 점은

이 책에서 “火熬”¹⁴⁸，“熬”¹⁴⁹，“熬炒”¹⁵⁰，“菊花熬”¹⁵¹ 등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모두 ‘炒’와 같은 뜻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아마 이 책이 일시에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한다. 때문에 후인들이 ‘火熬’와 ‘熬’를 오늘날 ‘炒’의 뜻으로 해석하였다.

炒：蜈蚣¹⁵²。
鹽水炒：杜沖¹⁵³。
糯米炒：薏苡仁¹⁵⁴，桑白皮¹⁵⁵，貝母¹⁵⁶，葶藶子¹⁵⁷。
豆炒：胡麻¹⁵⁸。
麩炒：枳實(至麩焦)¹⁵⁹，枳殼(待麩色黑)¹⁶⁰。
鹽炒：補骨脂¹⁶¹。
緩炒：草豆蔻¹⁶²。
茱萸炒：草豆寇¹⁶³。

133)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80.
134)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70.
135)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51.
136)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46.
137)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4.
138)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98.
139)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46.
140)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24.
141)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24.
142)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59.
143)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08.
144)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55.
145)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44.
146)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79.
147)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40.

148)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56.
149)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94.
150)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38.
151)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50.
152)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13.
153)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41.
154)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62.
155)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46.
156)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44.
157)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45.
158)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63.
159)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30.
160)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30.
161)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14.
162)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24.
163)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24.

熬炒：天麻¹⁶⁴).

熬：桑螵蛸¹⁶⁵), 山茱萸¹⁶⁶), 桔梗¹⁶⁷), 常山¹⁶⁸), 棟實¹⁶⁹), 蚯蚓¹⁷⁰).

火熬：蔓荊子(火熬 干用)¹⁷¹).

菊花熬：巴戟天¹⁷²).

5) 炙法

炙法은 매우 많아 귀납시키면 8가지가 있고, 그 중에 黃精汁塗炙하는 것을 제외한 기타 炙法은 오늘날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酥塗炙：甘草¹⁷³), 肉蓯蓉¹⁷⁴), 批把葉¹⁷⁵), 蟾酥¹⁷⁶), 皂莢¹⁷⁷), 蕪州烏蛇¹⁷⁸).

酥蜜炙：杜冲¹⁷⁹).

黃精汁塗炙：伏翼¹⁸⁰).

- 164)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38.
- 165)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94.
- 166)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95.
- 167)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03.
- 168)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19.
- 169)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25.
- 170)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03.
- 171)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56.
- 172)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50.
- 173)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55.
- 174)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74.
- 175)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53.
- 176)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20.
- 177)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18.
- 178)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65.
- 179)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41.

炙燥：阿膠¹⁸¹).

蜜塗炙：藥木¹⁸²).

羊脂炙：鹿茸¹⁸³).

薑汁炙：厚朴¹⁸⁴).

紙裹炙：溫胸臍¹⁸⁵).

6) 焙法

이러한 방법으로 포제하는 약물이 20여 종이고, 그 중에 식물약이 16종, 동물약이 3종, 광물약이 1종 기타 가공품 1종이 있다. 오늘날 焙法은 주로 昆蟲類 약물의 가공에 사용한다.

燎(乾)：黃耆¹⁸⁶), 牛膝¹⁸⁷), 辛夷¹⁸⁸), 石斛¹⁸⁹), 五味子¹⁹⁰), 蒲黃¹⁹¹), 續斷¹⁹²), 白前¹⁹³), 紫苑¹⁹⁴), 骨碎補¹⁹⁵), 馬兜鈴¹⁹⁶),

- 180)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77.
- 181)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82.
- 182)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51.
- 183)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87.
- 184)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44.
- 185)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14.
- 186)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12.
- 187)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45.
- 188)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59.
- 189)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73.
- 190)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02.
- 191)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65.
- 192)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21.
- 193)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63.
- 194)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23.
- 195)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97.
- 196)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97.

白蠟¹⁹⁷), 神曲¹⁹⁸), 訶子¹⁹⁹), 牛蒡子²⁰⁰), 昆布²⁰¹), 葶藶²⁰²), 蛭蚘²⁰³), 蛤蚧²⁰⁴), 密陀僧²⁰⁵), 雀蘇²⁰⁶).

7) 煨法

煨法은 몇 가지 약물에만 사용하였는데, 牡蠣²⁰⁷), 硝石²⁰⁸), 自然銅²⁰⁹)이다. 이러한 약물은 오늘날에도煨法으로 ‘炮制’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自然銅은 이 책의 방법과 현대의 방법 모두 ‘醋’로煨制하지만, 여기에서는 醋浸、悶煨하고 현재 自然銅은 明煨한 후에 醋淬하여 방법의 차이가 크다. 礬石은 여기에서는 悶煨하고 현대에서는 明煨法을 쓴다.

8) 煉法

여기에서 煉法은 “煉蜂窠”²¹⁰)과 “煉熊脂”²¹¹)를 언급하였고, 그 중에 ‘煉蜂蜜’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9) 燒法

燒法은 현재 사용되지 않으며 여기에서는 “燒知母”²¹²) 하였고, 오늘날에는 知母를 鹽炙法을 채용하고 있다²¹³).

10) 煨法

여기에서 “煨肉豆蔻”(糯米粉熱湯搜裹豆蔻, 煨熟)²¹⁴), “面煨肉豆蔻”(醋調面煨)²¹⁵)를 언급하였고 煨法과 肉豆蔻의 ‘煨制方法’²¹⁶)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11) 浸法

여기에서 언급한 浸法은 상당히 많아 16종에 이르고 언급한 여러 약물은 오늘날에는 대부분 사용되지 않는다.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水浸 : 枸杞子²¹⁷), 細辛²¹⁸), 皂莢²¹⁹), 密陀僧²²⁰), 商陸²²¹).

湯浸 : 郁李仁²²²).

蜜水浸 : 葳蕤²²³).

甘草湯浸 : 遠志²²⁴), 枸杞子²²⁵), 龍膽²²⁶), 白前²²⁷),

197)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74.
198)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79.
199)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12.
200)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37.
201)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71.
202)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23.
203)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03.
204)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09.
205)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54.
206)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01.
207)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80.
208)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41.
209)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46.
210)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88.
211)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18.

212)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88.
213)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88.
214)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16.
215)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16.
216)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16.
217)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95.
218)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81.
219)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18.
220)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54.
221)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10.
222)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21.
223)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18.
224)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75.

梔子²²⁸), 雷丸²²⁹), 雀蘇²³⁰), 枇杷葉(甘草湯洗)²³¹).
 漿水浸 : 黃連²³²), 五味子²³³), 石榴皮²³⁴).
 枸杞子湯浸 : 巴戟天²³⁵).
 牒竹瀝浸 : 前胡²³⁶).
 芭蕉水浸 : 辛夷²³⁷).
 酒浸 : 石斛²³⁸), 柏子仁²³⁹), 續斷²⁴⁰), 當歸²⁴¹),
 溫朮²⁴²), 密蒙花²⁴³), 百部²⁴⁴), 常山²⁴⁵), 伏翼²⁴⁶),

澤瀉²⁴⁷), 蛤蚧²⁴⁸).
 黃精汁浸 : 牛膝²⁴⁹), 升麻²⁵⁰), 柏葉²⁵¹), 柏子仁²⁵²),
 鹿茸²⁵³).
 豬脂浸 : 阿膠²⁵⁴).
 糯泔浸 : 柏葉²⁵⁵), 苦參²⁵⁶), 白薇²⁵⁷), 白殭蠶²⁵⁸),
 射干²⁵⁹), 蚯蚓²⁶⁰).
 醋浸 : 葦芩²⁶¹), 鄆州烏蛇²⁶²).
 童子便浸 : 青蒿²⁶³).
 竹瀝浸 : 瞿麥²⁶⁴).
 黑豆浸 : 附子²⁶⁵), 仙茅²⁶⁶).

- 225)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95.
 226)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59.
 227)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63.
 228)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33.
 229)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76.
 230)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01.
 231)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53.
 232)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12.
 233)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02.
 234)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07.
 235)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50.
 236)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91.
 237)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59.
 238)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73.
 239)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32.
 240)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21.
 241)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69.
 242)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14.
 243)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62.
 244)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68.
 245)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19.

- 246)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77.
 247)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82.
 248)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09.
 249)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45.
 250)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47.
 251)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55.
 252)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31.
 253)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96.
 254)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82.
 255)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55.
 256)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84.
 257)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64.
 258)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74.
 259)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08.
 260)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03.
 261)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23.
 262)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65.
 263)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p.283~284.
 264)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94.

12) 洗法

洗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水洗法은 많이 사용하지만 香草湯浴, 苦參水洗는 볼 수 없으며 水淘法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水洗 : 黃精²⁶⁷, 山藥(去涎)²⁶⁸, 紫莞²⁶⁹.

香草湯浴 : 龍骨²⁷⁰.

水淘 : 滑石²⁷¹, 覆盆子²⁷², 苦參²⁷³, 牽牛子²⁷⁴.

苦參水洗 : 髮²⁷⁵.

13) 飛法

水飛 : 赤石脂²⁷⁶, 石鐘乳²⁷⁷, 代赭石²⁷⁸.

生甘草水飛 : 石膏²⁷⁹.

飛法은 오늘날까지 줄곧 사용되고 있으며 石膏만은 水飛法으로 ‘炮制’하지 않고 현대 石膏는 明緞法을 사용한다²⁸⁰.

- 265)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79.
- 266)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60.
- 267)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16.
- 268)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28.
- 269)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23.
- 270)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1.
- 271)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46.
- 272)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65.
- 273)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84.
- 274)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25.
- 275)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755.
- 276)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44.
- 277)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9.
- 278)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4.
- 279)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8.

14) 非藥用 부위를 제거

非藥用 부위를 제거하고 약용부위에 따른 분리에 관한 일부 내용 가운데 규정한 항목이 번다하고 매우 자세하며 대다수는 현대적인 방법과 요구에 부합한다. 현대에는 ‘去蕊’를 언급하지 않았고 ‘去鬚’를 강조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黃連은 일부 지역에서 털을 제거하여 따로 약용으로 사용한다.

去鬚 : 白前²⁸¹, 紫莞²⁸², 柴胡²⁸³, 白薇(去鬚)²⁸⁴, 紫草(頭와 양쪽 鬚를 제거)²⁸⁵.

去心 : 遠志²⁸⁶, 茯苓²⁸⁷, 枸杞根²⁸⁸, 天門冬²⁸⁹, 貝母²⁹⁰, 牡丹皮²⁹¹.

去尖皮 : 酸棗仁²⁹², 杏仁²⁹³, 桃仁²⁹⁴, 郁李仁²⁹⁵, 天雄²⁹⁶.

- 280)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9.
- 281)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63.
- 282)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23.
- 283)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06.
- 284)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64.
- 285)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22.
- 286)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75.
- 287)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72.
- 288)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95.
- 289)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41.
- 290)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44.
- 291)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43.
- 292)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59.
- 293)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15.
- 294)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38.
- 295)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21.

去粗皮 : 杜冲²⁹⁷, 肉桂²⁹⁸, 黃柏²⁹⁹, 厚朴³⁰⁰, 蘇木³⁰¹, 猪苓³⁰².

去皮 : 地黃³⁰³, 前胡³⁰⁴, 天門冬³⁰⁵, 山藥³⁰⁶, 升麻³⁰⁷, 菖蒲³⁰⁸, 胡麻³⁰⁹, 芍藥³¹⁰, 柴胡³¹¹, 桑白皮³¹², 白芷³¹³, 商陸³¹⁴, 仙茅³¹⁵, 木瓜³¹⁶, 雷丸³¹⁷, 皂莢³¹⁸,

- 296)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40.
- 297)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41.
- 298)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47.
- 299)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51.
- 300)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44.
- 301)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35.
- 302)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75.
- 303)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31.
- 304)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91.
- 305)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41.
- 306)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28.
- 307)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47.
- 308)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86.
- 309)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63.
- 310)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66.
- 311)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06.
- 312)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46.
- 313)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62.
- 314)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10.
- 315)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60.
- 316)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00.
- 317)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76.
- 318)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18.

訶子³¹⁹, 葦芩³²⁰.

去根 : 香薷³²¹.

去毛 : 黃連³²², 辛夷³²³, 骨碎補³²⁴, 秦艽³²⁵, 補骨脂³²⁶, 批把葉³²⁷.

去殼 : 兔絲子³²⁸, 梔子³²⁹.

去芦 : 牛膝³³⁰, 石斛³³¹, 細辛³³², 龍膽³³³, 白芍³³⁴, 白前³³⁵, 當歸(頭尖的 딱딱한 곳을 제거)³³⁶, 桔梗(頭尖的 딱딱한 곳 2~3분을 제거)³³⁷.

去蕊 : 女萎(頭와 白蕊을 제거)³³⁸, 旋覆花(里花蕊와

- 319)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12.
- 320)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23.
- 321)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86.
- 322)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12.
- 323)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59.
- 324)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97.
- 325)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00.
- 326)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14.
- 327)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53.
- 328)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41.
- 329)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33.
- 330)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45.
- 331)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73.
- 332)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81.
- 333)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59.
- 334)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66.
- 335)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63.
- 336)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69.
- 337)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03.
- 338)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32.

殼皮를 제거)339).

去核 : 山茱萸340).

去頭兼皮鱗 : 蕪州烏蛇341), 蛤蚧(독이 眼과 鬚에 있어 眼과 甲上, 尾上, 腹上의 肉肉를 제거)342).

去筋 : 麻黃343).

去莖葉 : 瞿麥(莖殼을 사용하고 莖葉은 사용하지 않음)344).

去丁蓋乳子 : 丁香345).

刷 : 枸杞子346).

약용 부위에 따른 분리 : 當歸347), 括樓348).

15) 粉碎

여러 약물의 분쇄방법을 기재하였고, 그 중에 搗細, 研, 杵의 방법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고, 細銼하는 방법은 犀角 등과 같이 소수의 귀중한 약제에 한하여 사용한다.

細銼 : 杜沖849), 人蔘350), 前胡351), 橘皮352), 牛膝353),

339)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61.
340)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95.
341)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65.
342)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09.
343)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88.
344)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94.
345)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58.
346)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95.
347)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69.
348)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05.
349)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41.
350)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29.
351)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91.
352)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64.
353)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45.

菖蒲354), 獨活355), 犀角356), 百部357), 蘇木358), 澤瀉359), 昆布360), 椿根皮361).

搗細 : 茯苓362), 琥珀363), 龍骨364), 丹砂365), 石決明366), 肉桂367), 密陀僧368), 象膽369), 牛蒡子370), 常山371), 青箱子372).

搗篩極細 : 羚羊角(사람의 腸을 噛지 못하게 세말)373), 牛黃(먼지처럼 짚어 細研)374), 鱉甲375), 珍珠376), 石膏377).

354)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86.
355)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99.
356)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11.
357)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68.
358)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35.
359)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82.
360)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71.
361)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50.
362)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72.
363)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77.
364)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1.
365)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1.
366)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70.
367)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47.
368)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54.
369)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05.
370)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37.
371)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19.
372)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20.
373)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99.
374)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63.
375)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24.

梔子378).

杵粉：兔絲子379), 犀角380), 莎草香附子381).

研：阿膠382), 牡蠣383), 麝香384), 犀角385), 阿膠386), 羚羊角387), 石膏388), 寒水石389), 牡蠣390), 磁石391), 阿魏392), 蓖麻子393), 麝香394).

槌破：槐子395), 槐花396).

醋磨：蓬莪朮397).

- 376)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92.
- 377)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8.
- 378)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33.
- 379)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41.
- 380)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11.
- 381)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01.
- 382)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82.
- 383)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80.
- 384)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26.
- 385)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11.
- 386)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82.
- 387)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99.
- 388)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8.
- 389)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59.
- 390)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80.
- 391)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55.
- 392)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67.
- 393)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51.
- 394)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26.
- 395)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54.
- 396)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54.
- 397)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26.

16) 飲片切制

飲片의 切制에 관하여 이 책에서 몇 가지 방법을 언급하였는데, 그 중에 ‘銼片’의 개념을 이해할 수 없어銼는 분말을 만드는 것인데 어떻게 片이 될 수 있는지는 고찰을 요한다.

薄切：黃精398), 附子399), 木瓜400), 檳榔(細切)401), 豬苓(薄切)402), 商陸(小薄切)403).

銼片：大黃404).

橫切：續斷405).

切：桑白皮406), 莎草香附子407), 仙茅(切豆許大)408).

刀劈：五味子409).

17) 건조

여기에서 제시한 여러 건조방법은 인공으로 건조하는 焙乾을 제외하곤 대체로 자연건조법이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陰乾、暴乾、晒乾이다.

陰乾：人蔘410), 桑寄生411), 女萎412), 五加皮413),

- 398)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16.
- 399)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79.
- 400)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00.
- 401)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57.
- 402)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75.
- 403)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10.
- 404)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34.
- 405)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21.
- 406)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46.
- 407)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01.
- 408)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60.
- 409)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02.
- 410)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29.

莎草香附子414), 龍膽415), 蘇木416), 椿根皮417).

暴乾 : 黃精418), 山藥419), 石斛420), 天門冬421), 細辛422), 升麻423), 龍膽424), 菖蒲425), 附子426), 補骨脂427), 香薷428), 仙茅429), 澤瀉430).

晒乾 : 前胡431), 滑石432), 赤石脂433), 覆盆子434),

骨碎補435), 大戟436), 牽牛子437), 胡麻438), 杏仁439), 楮實440), 大黃441), 木瓜442), 青蒿443), 昆布444).

風乾 : 百部445).

吹乾 : 瓜蒂(집안에 바람이 부는 곳에 걸어 吹乾한다)446).

日乾 : 牡丹皮447), 飛廉448), 徐長卿449), 常山450), 雷丸451) 等.

懸合乾 : 馬兜鈴452), 桃仁(차마 아래에 걸어 건조시킨다)453), 澤蘭(집안 남쪽 구석에 걸어둔다)454).

411)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38.
412)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32.
413)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40.
414)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01.
415)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59.
416)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35.
417)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50.
418)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16.
419)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28.
420)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73.
421)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41.
422)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81.
423)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47.
424)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59.
425)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86.
426)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79.
427)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14.
428)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86.
429)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60.
430)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82.
431)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91.
432)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46.
433)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44.

434)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65.
435)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97.
436)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36.
437)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25.
438)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63.
439)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15.
440)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48.
441)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34.
442)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00.
443)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p.283~284.
444)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71.
445)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68.
446)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09.
447)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43.
448)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p.270~271.
449)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09.
450)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19.
451)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76.
452)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97.
453)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38.
454)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69.

18) ‘炮制’의 주의사항

주의사항에 관한 요구가 구체적이고 그 중에 다수는 현대 포제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상세하다.

忌鐵器：地黃⁴⁵⁵，桑白皮⁴⁵⁶，知母⁴⁵⁷，茜草⁴⁵⁸，莎草香附子⁴⁵⁹，仙茅⁴⁶⁰，木瓜⁴⁶¹，石榴皮⁴⁶²。

忌鉛器：桑白皮⁴⁶³，茜草⁴⁶⁴。

忌銅器：地黃⁴⁶⁵，玄參⁴⁶⁶，肉豆寇⁴⁶⁷。

忌風：肉桂(如用末，即用重熟絹并紙裹，勿令犯風)⁴⁶⁸，羚羊角⁴⁶⁹，蜀椒(勿令傷風)⁴⁷⁰。

忌火：桑寄生(勿見火)⁴⁷¹，香薷⁴⁷²，沉香⁴⁷³。

- 455)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31.
- 456)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46.
- 457)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88.
- 458)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93.
- 459)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01.
- 460)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60.
- 461)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00.
- 462)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07.
- 463)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46.
- 464)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93.
- 465)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31.
- 466)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51.
- 467)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16.
- 468)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47.
- 469)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99.
- 470)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55.
- 471)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38.
- 472)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86.
- 473)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34.

19) 약물 보관

약물의 성질에 근거하여 약물을 다른 용기에 보관하게 하였다. 오늘날의 각도에서 분석하면 고인의 이러한 요구는 상당한 과학성이 있다.

예를 들어 橘皮는 “鯉魚皮裏”⁴⁷⁴에 저장하게 하였는데, 이렇게 하면 밀폐되어 橘皮의 성분이 휘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水銀은 독이 있어 보이는 곳에 두지 말고 葫芦匱에 담아둔다.⁴⁷⁵ 이 밖에 澤蘭⁴⁷⁶，椿根皮⁴⁷⁷，珍珠⁴⁷⁸를 명주자루에 담아 두어야 하는 등 『炮炙論』에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또한 瓷器에 蛤蚧(瓷器에 담아 지붕 동쪽에 하룻밤 걸어두어 사용하면 藥力이 10배나 증가하고 꼬리를 상하게 하지 말라)⁴⁷⁹，密陀僧을 담아 두라⁴⁸⁰는 등이다.

20) 復制

즉 어떤 약물의 포제과정에 여러 약물을 응용함으로써 모종의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이러한 방법은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 나타나는 復制방법은 매우 많아 丹砂，石決明，雲母，礬石，硝石，石硫黃，海蛤，雄黃，雌黃，磁石，珍珠 등을 復制한다.

21) 약간의 이론적인 틀

‘炮制’이론은 실천을 통한 경험을 귀납시킨 것에서 기원하였는데, 이는 상당히 긴 형성과정을 거친 것으로 『炮炙論』에서 초기의 틀을 갖추었다.

- 474)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64.
- 475)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6.
- 476)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69.
- 477)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50.
- 478)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92.
- 479)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09.
- 480)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54.

水洵의 목적 : 覆盆子를 水洵하면 黃葉과 皮蒂를 제거할 수 있다⁴⁸¹⁾.

去核이론 : 山茱萸은 核을 제거해야 하는데 核이 滑精하기 때문이다⁴⁸²⁾.

去皮이론 : 葶藶은 去皮해야 하고 去皮하면 肺를 상하여 上氣하는 것을 면한다⁴⁸³⁾.

糯米了甘浸이론 : 苦參은 糯米로 沿浸하여 “其腥穢氣, 并浮在水面上”⁴⁸⁴⁾하게 한다.

炮制水銀 : 去毒하기 위함이다⁴⁸⁵⁾.

服法이론 : 龍膽은 “苦寒, 空腹餌之, 令人溺不禁”⁴⁸⁶⁾이라 하였다.

22) 우열과 진위감별

이 책의 특징은 ‘炮制’의 방법, 목적과 요구를 드러낸 것이다. 기타 본초서가 약물의 성미, 공능 및 응용, 산지, 형태 및 진위 등에 중점을 둔 것과는 다르게 특별히 약물의 우열과 진위를 취급하였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크다.

우열 감별 : 鱉甲⁴⁸⁷⁾, 防己⁴⁸⁸⁾, 沉香⁴⁸⁹⁾, 牛黃⁴⁹⁰⁾, 石硫黃⁴⁹¹⁾, 雄黃⁴⁹²⁾ 등.

진위 감별 : 溫肺臍⁴⁹³⁾, 磁石⁴⁹⁴⁾, 天麻⁴⁹⁵⁾, 蜈蚣⁴⁹⁶⁾, 巴豆⁴⁹⁷⁾, 犀角⁴⁹⁸⁾, 續斷⁴⁹⁹⁾, 石鐘乳⁵⁰⁰⁾, 云母⁵⁰¹⁾, 胡麻⁵⁰²⁾, 菖蒲⁵⁰³⁾, 兔絲子⁵⁰⁴⁾, 黃精⁵⁰⁵⁾.

6. 『雷公炮炙論』과 道家

『雷公炮炙論』을 저작한 의도와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은 서문이다. 이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雷公炮炙論序」

오늘날 용약에 君藥과 臣藥이 있음을 모른다. 君臣을 판별할지라도 또한 약물 사이에 상호 제약하는 관계를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欸毛(오늘날 鹽草라 칭한다)는 소변으로 수치해야 반점과 종독을 즉시 없앨 수 있다. 象膽과 함께 함께 쓰면 塵膜을 없애 눈을 밝게 한다. 따라서 약물에 각자 다른 성질이 있음을 알 수 있다. 鮭魚(河豚)를 나무에 걸어두면 나무가 시들어 죽지만 狗膽을 바르면 잎과 가지가 원래대로 무성해진다. 無名(즉 無名異로 玉石과 비슷하고 위에서 보면 石炭과 비슷하며

481)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65.
482)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95.
483)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23.
484)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84.
485)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6.
486)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59.
487)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24.
488)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72.
489)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34.
490)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63.
491)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49.
492)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51.

493)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14.
494)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55.
495)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38.
496)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13.
497)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05.
498)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11.
499)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21.
500)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8.
501)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2.
502)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63.
503)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86.
504)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41.
505)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216.

味가 특수하다)은 골절로 인한 동통을 멎게 하고 손가락을 잘렸을 때 無名異를 사용하면 손톱이나 머리털을 깎는 것처럼 전혀 아픈 느낌이 없다. 聖石(즉 光明鹽)은明目하는 공효가 있어 明目을 치료하고 또한明目하는 공효가 구름이 걷혀 햇빛이 비추는 것과 같다. 當歸는 止血하면서 破血하는데 그 當歸頭와 當歸尾 효능이 다르다(頭部는 止血하고 尾部는 破血한다). 養子是 수치하여 사용하면 수면을 촉진시키고 生用하면 사람을 흥분시켜 잠들지 못하게 한다. 飮藏는 鹽味를 물게 한다(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飮中算으로 짠맛을 물게 한다). 술과 만나면 粘交로 변한다(물같이 물게 된다. 交는 交加枝이고 일명 枳椒이다. 술을 交加枝에 바르면 물맛으로 변한다).

鐵이 神砂를 만나면 가루처럼 찢득해지고, 돌이 鶴糞을 만나면 먼지처럼 되어 흩어져 나르고, 楸가 橘을 만나면 꽃이 골수색깔처럼 변한다. 弦이 끊어지고 劍이 꺾일 경우 驚血을 만나면 처음처럼 된다(驚血로 膠를 만들어 끊어진 곳에 바르면 철물은 영원히 꺾이지 않는다). 강이나 호수가 마르면 遊波(즉 제비)를 강과 호수에 집어넣으면 곧 파도가 세차게 인다. 鉛이 火를 막게 하려면 반드시 仗修天(오늘날 補天石이라 칭한다)에 의거해야 한다. 鉛의 형체를 굳건하게 하려면 紫背(일종의 紫背天葵로 평소에 먹은 葵菜와 비슷하고 단지 背面에는 紫色을 발하고 정면에는 青色을 발하며 鉛의 형체를 堅硬하게 한다)를 잊어서는 안 된다. 砒霜을 술에 담아두려면 반드시 宗心草(이밖에 宗心草가 있는데 오늘날 石竹이라 칭하며 돌의 棕心은 아니고 오용하기 쉽다. 이러한 草는 歙州(安徽 歙縣)에서 나오고 산출되는 곳에는 蟲獸가 많다)에 의거해야 한다. 雌黃은 芹花를 만나야 곧 응고될 수 있다(芹花는 그 이름으로 알 수 있다시피 형상이 작약과 비슷하고 꽃은 청색이 근 3尺까지 자라고 잎에는 황색의 반점이 있으며 미는 苦澀하며 약용으로 만들 수 있고 雌黃을 달인 후에는 곧장 불을 멈추어야 한다). 礪砂가 赤須(본초명이 赤須이고 오늘날 虎須草가 그것이며 이것으로 礪砂를 달이면 불을 생성할 수 있다)를 만나면 금속 술에서 용해될 수 있다. 물속에서 불이 생기게 하려면 兕腎의 골수가 없으면 안 된다(바다 속에 兕腎이라는 짐승이 있어 그 골수를 기름에 넣으면 기름이 물에 젖어 물속에서 불이 생기고 불을 끌 수 없으면 술을

끓여 주면 불을 곧 꺼지게 된다. 이는 실내에서 炮炙하지 못한다).

치아를 성장시키려면 雄鼠의 骨末에 의거해야 한다(치아가 손상되거나 다년간 성장하지 않으면 雄鼠의 골수를 갈아 藥末로 만들어 치아가 손상된 곳에 바르면 치아가 곧 원래의 모양대로 자란다). 두발이나 눈썹이 빠지면 半夏를 넣어 바르면 곧 자란다(눈썹과 모발이 빠지면 생반하의 줄기를 찢은 후에 즙을 내어 모발이 빠진 곳을 바르면 모발이 곧장 자란다). 눈동자가 斜視이면 五加皮의 암컷 잎을 복용하면 저절로 교정될 수 있다(五加皮의 잎에는 암컷과 수컷이 있어 잎이 3개이면 숫 잎이고 5개이면 암 잎으로 반드시 5개인 암 잎으로 분말을 만들어 술에 담근 후에 복용하면 斜視는 교정될 수 있다). 脚에 거스러미가 생기면 바짓가랑이 띠에 蓂蓉根을 묶어둔다(다리에 거스러미가 생기면 蓂蓉의 뿌리를 바짓가랑이 띠에 묶어두어 감응시키면 다시는 동통을 느끼지 못한다). 陰囊이 쪼그라들어 소변이 잦은 사람에 밤에 竹木을 달여 먹는다(소변이 잦은 환자는 밤에 蓂蓉을 달여 먹으면 잠을 자는 밤새도록 일어나지 않는다). 몸이 차고 배가 부르면 반드시 鸕鷀에 의거해야 한다(복부가 팽팽해지면 승능에 鸕鷀의 분말을 섞어 복용하면 복부가 곧장 당초처럼 편평해진다). 血多하여 월경의 양이 너무 많으면 박씨를 먹으면 낫는다(박의 씨를 찢어 분말을 만들어 기름을 제거하여 복용하면 경혈이 즉각 멎는다). 咳嗽와 逆喘이 빈발하면 술에 熟天雄을 복용하면 치료할 수 있다(天雄을 炮한 후에 술로 1錢을 복용하면 곧 안정된다). 전신에 疹風이 생기면 生側을 차게 복용한다(附子 곁에 생기는 것이 側子이고 側子를 갈아 분말로 만들어 찬술에 복용하면 병이 낫는다). 腸虛로 泄痢하면 반드시 葶藶의 도움을 받아 치료한다(즉 五倍子를 갈아 분말로 만들고 찢어 끓인 물로 복용하면 낫는다).

久渴하고 心煩하면 竹瀝으로 치료한다. 배속의 積塊를 없애려면 반드시 消礪을 사용한다(消礪은 消石과 礪砂 두 가지 약물로 이 약을 乳酥에 넣어 갈아 細粉하고 함께 다시 煨燥를 거친 후에 술로 복용하면 약효가 매우 신기하다). 식욕과 주량을 증가시키려면 반드시 水蘆와 厚朴을 달여 복용한다(음식을 먹지 못하고 술을 많이 마지시 못하는 사람은 蘆根과 厚朴 두 가지 약을 달여서 내복한다). 근골을 강건하게 하려면 반드시 菴蓉과 鱈魚를 사용해야 한다

(菴蓉과 鱈魚를 갈아 가루로 만들고 黃精汁으로 환을 만들어 복용하면 기력이 평소보다 배나 증강한다. 『乾寧記』에서 나온다). 용모를 유지하고 연년익수하려면 黃精汁으로 神錦(朱砂)을 찌서 복용한다(신선한 黃精汁과 세말한 神錦을 섞어 柳木 시루에 7일간 찌고 가루와 枳椒으로 만든 丸을 복용하면 용모가 어린 여자아이와 같아진다). 병소가 어느 곳인지를 알려면 입속에 陰膠를 떨어트린다(陰膠는 시루속의 氣垢로 입속에 약간 떨어트리면 臟腑의 기복을 느낄 수 있고, 기복이 멈추는 곳을 관찰하면 아픈 곳의 소재를 알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 산후에 肌肉이 부으면 甘皮를 술로 복용한다(산후 肌肉에 부종이 생기면 술로 甘皮를 복용하면 곧 좋아진다). 口瘡으로 혀가 갈라지면 黃蘇로 치료하면 곧 낫는다(口瘡으로 혀가 갈라지면 根黃(즉 大黃)에 酥를 발라 만든 분말을 입속에 머금고 있으면 병은 곧 낫는다). 두통이 매우 심하면 콧속에 硝石가루를 넣는다(두통이 있으면 硝石을 가루로 내어 콧속에 넣으면 두통이 그친다). 心痛으로 권역하면 빨리 延胡索으로 치료한다(延胡索을 산재로 만들어 술과 함께 복용하면 즉각 낫는다).

이상과 같은 여러 치법은 모두 약물의 공효이다. 내가 聖明에 처해 있을 때에는 몇몇 의약이론을 천박하게 천술하여 성인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였지만 전부 깨닫기 어려웠고, 여기에서 약물의 공능을 조략하게 진술하였다. 양생에 있어서 선조의 요구를 계승하기 위해 그들은 炮, 熬, 煮, 炙의 제약 방법과 시간을 기술하였다. 용약과 제약의 원인을 탐구하려면 반드시 본서의 진집을 열람해야 한다. 본인의 식견이 짧기 때문에 炮, 熬, 煮, 炙를 기록한 제약방법과 또한 藥名, 制方을 상세히 열거하였다. 上, 中, 下 3권으로 나누어 모두 300여 가지 약물에 대해 아래에 상세히 서술하였다⁵⁰⁶⁾.

506)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p.1~3. “若夫世人使藥, 豈知自有君臣; 既辨君臣, 寧分相制. 只如軟毛今鹽草也沾溺, 立銷斑腫之毒; 象膽揮黏, 乃知藥有情異. 鮭魚插樹, 立便乾枯; 用狗塗之以犬膽灌之, 插魚處立如故也, 卻當榮盛. 無名無名異, 形似玉柳石 又如在灰, 味別止楚, 截指而似去甲毛. 聖石開盲, 明白而如雲離日. 當歸止血、破血, 頭尾效各不同頭止血, 尾破血. 葵子熟生, 足睡、不眠立據. 弊算淡鹵常使者 饌中算, 能淡鹽味, 如酒沾交. 今蜜枳, 織枝, 又云交加枝. 鐵遇神砂, 如泥似粉. 石經鶴類, 化作塵飛. 欬見橘, 花似髓. 斷弦折劍, 遇鴛血而如初以鴛血煉作膠, 粘折處, 鐵物永不斷. 海竭江枯, 投遊波燕於是也, 而立泛. 令鉛拒火,

그리고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기재한 포제에 대하여 雲母, 附子, 人蔘을 예로 들어 보기로 한다.

“雲母 : 사용할 때에는 색깔이 黃黑하고 두텁고 딱딱해야 한다. 홍색이거나 부인의 손을 거친 것은 약으로 사용할 수 없다. 반드시 빛이 나고 얼음같이 맑은 것이 상품이다. 1斤마다 먼저 小地膽草, 紫背天葵, 生甘草, 地黃汁 각 1鎰(즉 24兩)을 달아 마른 것은 잘게 부수고 신선한 것은 즙을 짜내어 운모와 함께 사기 술에 넣고 깨끗한 물 3鎰을 붓고 7일 밤낮으로 달인다. 물과 불을

須仗修天今呼爲補天石. 如要形堅, 豈忘紫背有紫背天葵, 如常食葵菜, 只是背紫面青, 能堅鉛形. 留砒住鼎, 全賴宗心 別有宗心草, 今呼石竹, 不是食棕, 恐誤. 其草出欽州, 生處多蟲獸. 雌得芹花其草名爲立起, 其形如芍藥, 花色膏, 可長三尺以來, 葉上黃斑色, 味苦澁, 堪用, 煮雌黃立住火. 立便成庚. 礪遇赤須其草名赤須, 今呼爲虎須草, 是用煮礪砂, 即生火驗, 水留金鼎. 水中生火, 非 豸腎髓而莫能海中有獸, 名曰豸腎, 以髓入在油中, 其油沾水, 水中大生, 不可救之, 用酒噴之即凝. 勿於屋下收. 長齒生牙, 賴雄鼠之骨末其齒若折, 年多不生者, 取雄鼠脊骨作末, 搯折處, 齒立生如故. 髮眉墮落, 塗半夏而立生眉髮墮落者, 以生半夏莖煉之取涎, 塗髮落處立生. 目辟眼目雖, 有五花而自正五加皮是也, 其葉有雄雌, 三葉爲雄, 五葉爲雌, 須使五葉者, 作末, 酒浸飲之, 其目目雖 在者正. 腳生肉軟, 棍系若根腳有肉軟者, 取在良宿根於棍帶上系之, 感應乖不痛. 囊皺旋多, 夜煎竹木多小便者, 夜煎草藤一件服之, 永不夜起也. 體寒腹大, 全賴鸚鵡若息腹大如鼓. 米飲調鸚鵡末服, 立故如故也. 血泛經過, 飲調瓜子甜瓜子內仁搗作末, 去油, 飲調服之, 立絕. 咳逆數數, 酒服熟雄天雄炮過, 以酒調一錢匕服, 立定也. 遍體疹風, 冷調生側附子旁生者曰側子, 作末冷酒服, 立差也. 腸虛瀉病, 須假草零搗五倍於作末, 以熟水下之, 立止也. 久渴心煩, 宜投竹瀝. 除癥去塊, 全仗硝礪礪即礪砂. 硝石二味, 於乳鉢中研作粉, 同煨了, 酒服, 神效也. 益食加飢, 須煎蘆朴不食者, 並飲酒少者, 煎逆水蘆根并厚朴二味湯服. 強筋健骨, 須是菴菴蓉并鱈魚二味, 作末, 以黃精汁丸服之, 可力倍常十也, 出乾寧記事. 駐色延年, 精蒸神錦出顏色, 服黃精自然汁, 拌細研神錦, 於抑本眼中蒸七日了, 以本蜜丸服, 顏貌可如幼女主容色也. 知瘡所在, 口点陰膠陰膠即是航中氣垢, 少許於口中, 即知藏腑所起, 直徹至住處知痛, 足可醫也. 產後肌浮, 甘皮酒服產後肌浮, 酒服 甘皮立愈. 口瘡舌垢, 立愈黃蘇口瘡舌垢, 以根黃塗蘇炙作末, 含之立差. 心痛欲亡, 鼻投硝末頭痛者, 以硝石作末內鼻中, 立止. 心痛欲死, 速覓延胡以延胡索作散, 酒服之, 立愈也. 如斯百種, 是藥之功. 某司主遇明時, 謬看醫理, 雖尋聖法, 難可窮微. 略陳藥餌之功能, 豈溺仙人之要術? 其制藥炮, 熬, 煮, 炙, 不能記年月哉! 欲審元由, 須看海集. 某不量短見, 直錄炮, 熬, 煮, 炙, 列藥制方, 分爲上, 中, 下三卷, 有三百件名, 具陳於後.”

알맞게 일정하게 평온을 유지하면서 끓여 雲母가 술 바닥에 자연스럽게 碧玉漿이 되도록 한다. 이때에 재빠르게 깨끗한 물을 부어 계속 저어주어 수면에 떠오르는 거품을 걷어낸다. 이와 같이 세 차례 반복하여 깨끗이 걸러내고 沉香 1兩을 찧어 가루를 내어 깨끗한 물에 침향을 달여 3升가량 되게 하여 세 번 나누고, 다시 雲母漿에 씻어 햇볕에 말려 사용한다.”⁵⁰⁷⁾고 하였다.

현대적인 포제 : “원 약재의 雜質과 모래를 깨끗이 씻어내고 찧어 부순다. 혹은 薄片으로 부순다. 煨雲母 : 깨끗한 운모를 취하여 耐火 용기에 넣고 센 불로 달군 후에 식혀서 갈아 부수어 사용한다.”⁵⁰⁸⁾고 하였다.

“附子 : 사용할 때에는 먼저 烏頭, 烏喙, 天雄, 側子, 木鱉子와 감별해야 한다. 烏頭는 꼭대기에 줄기가 약간 있고 표면이 검고 곁에 잔뿌리가 붙어 있다; 烏喙는 외피가 푸르고 주위에 콩만한 잔뿌리가 8, 9개가 있고, 밑바닥이 함몰되어 있으며 烏鐵같이 검다; 天雄은 몸통이 작고 뾰족하지 않고, 주위에 잔뿌리가 12개 있으며 외피는 푸른 것이 天雄이다; 側子是 附子 곁에 대추씨만한 것이 붙어 있다; 木鱉子是 喙, 附, 雄, 烏, 側子 가운데 가는 것으로 木鱉子라 하며 약에 넣지 못하고 잘못 복용하면 실명한다. 附子是 밑이 평평하고 9개의 각이 있고 곁은 검은색을 띠고 한 개의 무게가 1兩인 것이 좋은 품질로 약으로 쓸 수 있다. 포제 할 때 부자 10兩에 文武火에 炮하여 표피가 갈라지면 칼로 뿌리부분과 껍질을 긁어내고 이를 가늘게 쪼개어 집안 마당에 깊이 1尺되게 구덩이를 파서 하룻밤을 채우고 날이 밝으면 끄집어내어 焙乾하여 쓴다. 포제에 쓰는

507)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2 “雷公云 : 凡使, 色黃黑者厚頑; 赤色者, 經婦人手把者, 並不中用. 須要光瑩如冰色者爲上. 凡修事一斤, 先用小地膽草、紫背天葵、生甘草、地黃汁各一鎰, 乾者細銼, 鮮者取汁; 了, 於瓷鍋中安雲母並諸藥了, 下天池水三鎰, 著火煮七日夜, 水火勿令失度, 其雲母自然成碧玉漿在鍋底, 却, 以天池水猛投其中, 將物攪之, 浮如蝸涎者即去之; 如此三度, 淘淨了, 取沉香一兩, 搗作末, 以天池水煎沉香湯三升已來, 分爲三度; 再淘雲母漿了, 日中曬, 任用之.”

508)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3.

灰火는 雜木의 火를 쓰지 말고 柳木의 火가 가장 좋다. 陰制할 때에는 생것의 껍질, 꼭지, 바닥을 깎아내고 얇게 썰어 東流水와 黑豆에 5일 동안 담근 후에 걸러 내어 햇볕에 말려 쓴다. 陰制할 때에는 껍질과 꼭지를 제거한 附子 10냥에 생 검은콩 5냥과 東流水 6升을 쓴다.”고 하였다⁵⁰⁹⁾.

현대 포제 : “炮附子是 가는 모래를 술에 넣고 센 불로 모래를 달구고 깨끗한 부자 편을 넣어 모래와 함께 저어서 부자가 부풀고 색깔이 변하면 끄집어내어 모래를 걸러 식힌다. 淡附子是 소금에 절인 부자를 취하여 깨끗한 물에 담가 매일 2~3번을 물을 갈아 염분이 빠지게 하고 甘草, 검은콩과 함께 물을 부어 달여 속까지 익힌다. 부자를 절개하여 입으로 혀가 얼얼하지 않을 때에 끄집어내어 감초, 검은콩을 제거하고 얇게 썰어 말린다.”고 하였다⁵¹⁰⁾.

“人蔘 : 인삼은 비대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크기가 담 넓적다리 정도이고 형상은 사람의 모양과 비슷하다. 캔 후에는 陰乾하고 蘆頭와 검은 것은 제거하여 잘게 썰어 약에 넣어 사용한다. 여름에는 적게 사용하거나 인삼을 사용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心痰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⁵¹¹⁾.

509)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p.179~180. “雷公云 : 凡使, 先須細認, 勿誤用. 有烏頭, 烏喙, 天雄, 側子, 木鱉子. 烏頭少有莖苗, 長身烏黑, 少有旁尖; 烏喙皮上蒼, 有大豆許者孕八, 九個周圍, 底陷, 黑如烏鐵; 天雄身全矮, 無尖, 周圍四面有附孕十一個, 皮蒼色, 即是天雄; 並得側子, 只是附子旁, 有小顆附子如棗核者是; 木鱉子只是諸喙, 附, 雄, 烏, 側中毗穗者, 號曰木鱉子, 不入藥中用, 若服, 令人喪目. 若附子, 底平, 有九角, 如鐵色, 一個個重一兩, 即是氣全, 堪用. 夫修事十兩, 于文武火中炮, 令皺坼者去之, 用刀刮上孕子, 并去底尖, 微細劈破, 于屋下午地上掘一坑, 可深一尺, 安於中一宿, 至明取出, 焙乾用. 夫欲炮者, 灰火勿用雜木火, 只用柳木最妙. 若陰制使, 即生去尖皮底, 了, 薄切, 用東流水並黑豆浸五日夜, 然後灑出, 於日中曬令乾用. 凡使, 須陰制, 去皮尖了, 每十兩, 用生烏豆五兩, 東流水六升.”

510)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81.

511)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129. “雷公云 : 凡使, 要肥大, 塊如雞腿並似人形者. 凡采得, 陰幹, 去四邊蘆頭並黑者, 鏗入藥中. 夏中少使, 發心痰之患也.”

이상 雲母와 附子の 포제방법은 현대 포제에 비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지만 인삼의 가공방법은 오늘날에 비해 단순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근대(明清시기) 본초에서 이 책의 炮制法을 모두 따랐을까? 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 책의 일부 약물 포제법은 의가가 실용한 포제법이 아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本草經集注』에서 “道經, 仙方, 服食, 斷穀, 延年, 卻老 내지는 丹石을 제련하는 기이함과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는 묘는 약물의 가공방법을 이끌지 않음 없다. 용약의 이치 또한 본초와 同一하지만, 이를 제어하는 방법이 세상의 법과 약간 다르다.”⁵¹²⁾고 하여 도가의 양생 내지는 제약법과 의학은 상당히 밀접함을 알 수 있다.

『雷公炮炙論』의 내용은 의가, 도가 炮制法의 복합 체라 말할 수 있다. 뇌효가 劉宋사람이든 隋唐사람이든 그의 책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분위기는 모두 사리에 부합한다. 六朝隋唐시기가 바로 道家의 煉丹과 俗家の 服石이 성행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金石藥의 炮制法이 극도로 발전하였고, 또한 草木으로 金石藥을 伏制하는 방법이 출현하였다. 이러한 방법이 『雷公炮炙論』에 충분히 나타나 있다. 이 책의 서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鉛이 火를 막게 하려면 반드시 仗修天에 의거해야 한다. 鉛의 형체를 굳건하게 하려면 紫背를 잊어서는 안 된다. 砒霜을 술에 담아두려면 반드시 宗心草에 의거해야 한다. 雌黃은 芹花를 만나야 곧 응고될 수 있다. 礪砂가 赤須를 만나면 금속 술에서 용해될 수 있다.”⁵¹³⁾고 하였다.

위에서 밀줄 친 것은 모두 草藥이다. 道家는 이러한 草藥을 연단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시켜 金石藥을 降伏하길 바랐다. 이 책의 거의 모든 광물 약 포제법에서 많거나 적거나 모두 초약을 사용하였다.

의가의 포제법과 다른 점은 이러한 초약은 의가가 포제에서 사용하는 輔料藥(예를 들어 生薑, 甘草, 黑豆, 白礬, 豆腐, 吳茱萸, 膽汁 등)이 아니라 도가들이 金石을 ‘伏煉’하는 전용 초약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초약의 이름이 어떤 것은 본초(紫背天葵, 百部, 夜交藤 등)에 볼 수 있고 어떤 것은 종래 의가들이 사용하지 않고 도가의 책에서만 유전되었다. 예를 들어 龍尾蒿⁵¹⁴⁾, 碧棱花⁵¹⁵⁾, 天碧草⁵¹⁶⁾, 和陽草⁵¹⁷⁾, 五方草⁵¹⁸⁾ 등 10여 가지이다.

이 이외에 『雷公炮炙論』에는 어떤 포제 약품일지라도 그 과정이 복잡하고 忌諱가 많아 漢魏六朝 내지는 隋唐兩宋의 의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이러한 炮制法의 특징이 바로 도가의 장점이다. 의가가 이용한 약물의 포제는 六朝시기 의약이 분업된 이후 그 법이 일반적으로 매우 간단하다. 이는 의가가 약으로 치병함에 포제는 단지 독을 줄이고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었고, 藥家は 원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보통 약물의 포제법을 복잡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도가는 그렇지 않아 용약의 목적이 장생에 있고, 실험적인 성질을 띤 煉丹術이고, 만든 약품이 사회에서 널리 유통될 수 없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도가의 약물은 원가를 계산하지 않고 포제과정을 신비화, 복잡화하였다.

石硫黃을 예로 들면 陶弘景에 따르면 이는 도가, 의가가 모두 사용하는 것에 속하는 약물이다. 醫方에서 이 약의 가장 일반적인 제법은 갈아서 細末하여 대부분 외용하였고, 내복하는 것은 극히 적었다. 그러나 服食하기 위해 만드는 약품은 복잡한 煉制法을 거친다.

그렇다면 『雷公炮炙論』의 방법에 어디에 속할까? 여기에는 石硫黃 4兩을 포제하는 데에 龍尾蒿自然汁 1銖, 東流水 3銖, 紫背天葵汁 1銖, 粟遂子莖汁 1銖이

- 514)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50.
- 515)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52.
- 516)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41.
- 517)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58.
- 518) 南北朝 雷斅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32.

512) 唐慎微 編著.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서울. 大星文化社. 1983. p.33. “道經, 仙方, 服食, 斷穀, 延年, 卻老, 乃至飛丹轉石之奇, 雲騰羽化之妙, 莫不以藥導爲先. 用藥之理, 又一同本草, 但制禦之途, 小異世法.”
513) 唐慎微 編著.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서울. 大星文化社. 1983. p.41. “令鉛拒火, 須仗修天. 如要形堅, 豈忘紫背. 留毗住鼎, 全賴宗心. 雌得芹花, 立便成庚. 礪遇赤須, 水留金鼎 ……”

소요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밀봉하고 火煮하여 즙이 모두 없어지길 기다려 다시 百部末 10兩, 柳腫末 2斤, 一簇草 2斤을 가늘게 썰어 다시 이틀을 달인다. 그런 다음 硫黃을 깎아내어 熟甘草湯으로 씻고 발우에 넣어 2만 번 갈아야만 비로소 사용할 수 있다⁵¹⁹⁾.

이러한 기록에 의하면 雷公이 石硫黃 4兩을 炮炙하려면 첫 번째 144兩(鑰은 24兩입)의 3가지 草藥의 汁(이러한 즙을 짜내는데 필요한 약재는 중량을 계산할 수 없다)과 물이 소비된다. 졸인 액체에 소요되는 시간과 화력이 어떤지는 계산하지 않았다. 두 번째 과정에서 또한 草藥 84兩을 가하여 48시간을 달여야 비로소 硫黃을 취한다. 마지막으로 발우에 2만 번 간다. 매분 80번 정도 쉬지 않고 같은 4시간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4량의 硫黃이 적어도 3주야로 작업해야 하고 중량의 36배를 초과하는 輔料藥(짜내는 藥汁을 포함하여)과 18배의 물이 필요하게 된다. 이것이 상품으로 파는 약이라면 포제를 거친 이러한 硫黃의 값은 어느 정도 될까? 누가 이렇게 귀한 약재를 사용할까? 따라서 明末 명인인 李仲梓는 “古法製藥如雷斃, 失之太過”⁵²⁰⁾하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李氏는 『雷公炮炙論』에서 약물을 포제하는 방법이 주로 의가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당시 의약가가 실용하는 포제법을 총결한 것도 아니며 주로 도가가 약물을 修煉하기 위해 착안한 약물 포제임을 몰랐다. 따라서 이 책의 내용과 梁陶弘景의 『本草經集注』 序例에 기재된 炮制法⁵²¹⁾은 너무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는 『雷公炮炙論』이 다른 세계에서 전래되었다는 말과는 다르다. 陶弘景이 말한 바와 같이 道家의 “藥道”(용약의 목적과 煉制 방법)에 자신의 특징이 있지만 “用藥之理, 一同本草”⁵²²⁾하다. 道家와 의약가가

약물을 포제하는 것에 공통된 점이 있기도 하다. 약물을 깨끗하게 정선하고, 연마하고 분쇄하고, 輔料를 사용하는 몇몇 炮制法은 대체로 같다. 예를 들어 樹皮類의 약은 外層의 粗皮를 제거한다. “桂條” 아래 雷公은 “去上粗皮, 取心中味辛者使 …… 取有味厚處生用”⁵²³⁾이라 기재하였다. 이는 의가의 포제와 같은 것이다. 기타 非道家가 상용한 약물의 포제법은 보다 간결한 것이 많아 의약가의 포제법과 비교적 접근되어 있었다.

『雷公炮炙論』에서 구체적인 약물의 포제법이 번잡하고 원가가 높아 의가가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는 도가 정통 포제의 우수한 점이다. 진정한 道家 煉丹은 일종의 과학실험이다. 이 책은 제약실험과 확실히 유사한 기록으로 약명 아래마다 기재된 炮制 과정이 매우 규범적이어서 심지어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각 약물에 먼저 약물의 진위와 우열을 가리는 외관감별을 언급하여 혼동되기 쉬운 약품 및 형태를 지적하였고, 포제하는 약용 부위를 선별하는 등은 약재를 검사하고 품질을 보증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그 다음은 제약의 환경, 용약의 종류, 불이나 물을 사용하는데 따른 요구, 정확한 제량과 시간, 공구의 명칭 및 재질(銅刀, 槐砧 등), 輔料의 종류, 건조 방식 등에 대해 모두 공정의 선후에 따라 하나하나 정확하게 소개하였다. 필요할 때에는 상관된 도리를 언급하였다.

이 책에는 애매한 劑量(少許, 過量 등과 같은 것)과 시간 단위가 없고, 말이 구체적이지 못한 과정이 없으며 조작성이 매우 강하다. 이 책에서 조작 환경에 대한 요구가 도가의 색채를 띠고 있지만 작업 장소를 깨끗하게 하게 한 것은 나무랄 데가 없다. 예를 들어 雌黃의 炮制에 “凡修事, 勿令婦人, 雞, 犬, 新犯淫人, 有患人, 不男人, 非形人, 曾是刑獄地, 臭穢, 已(以上)並忌”⁵²⁴⁾라 하였다. 환경이 열악하고 더러움이 바로 ‘炮制’에 있어서 고대 藥家の 결함이었다.

519) 南北朝 雷斃 著.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50. “凡用, 四兩, 先以龍尾蒿自然汁一鑰, 東流水三鑰, 紫背天葵汁一鑰, 栗遂子莖汁一鑰, 四件合之, 攪令勻一, 鍋用六一泥固濟底下, 將硫黃碎之, 入於鍋中, 以前件藥汁旋旋添入, 火煮之, 汁盡爲度; 了, 再以百部末十兩, 柳末二斤, 一簇草二斤, 細銼之, 以東流水並藥等, 同煮硫黃二伏時; 日滿, 去諸藥, 取出, 用熟甘草湯洗了, 入鉢中研二萬幣方.”

520) 李仲梓. 續修四庫全書 卷993 本草通玄.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 p.58.

521) 李時珍. 中國醫學大系 40卷 本草綱目. 1978. p.772*338.

522) 唐慎微 編著.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서울. 大星文化社. 1983. p.33.

523) 唐慎微 編著.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서울. 大星文化社. 1983. p.290.

524) 唐慎微 編著.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서울. 大星文化社. 1983. p.104.

결론적으로 후세 포제에 대한 『雷公炮炙論』의 실제적인 영향은 후세에 이 책에서 상당히 복잡한 구체적인 약물 포제법을 답습한 것이 매우 적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의 몇몇 제약방법, 예를 들어 壓油取霜法, 輔料의 다양화(米泔水浸, 童溺浸과 같은 것) 등은 포제에 관한 약물에 흡수되었다. 특히 여기에서 언급한 ‘炮制’ 이론 - 예를 들어 약용하지 못하는 부위를 제거하지 않아 일으키는 부작용, 약제의 종류와 포제법을 잘못 하여 조성된 위해 등 - 이 대부분 후세 본초에 인용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雷公炮炙論』에서 가장 풍부하고 참신한 것이다. 이 밖에 이 책에서는 동일한 약물에 대해 부위를 구분하여 용약할 것을 강구하였다. 예를 들어 瞿麥은 蕊殼만 사용하고 莖葉은 사용하지 않고, 棟實은 核을 사용하고 肉을 사용하지 않고, 當歸는 頭身尾를 나누어 약에 넣는 것 등이다. 이러한 부분 용약은 當歸를 제외하곤 모두 의약가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의학 각과의 최초 전문서는 종종 그 분야를 획기적으로 총괄하였고 후세에 다시 발전하는 초석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雷公炮炙論』은 예외이다. 이는 隋唐 혹은 그 이전에 형성되었지만 당시의 포제에 대해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단지 北宋말 『證類本草』에 轉錄된 후에 비로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또한 주로 明清 본초에 그 내용이 인용되었으며 藥家는 그 명성을 이용하여 상업적으로 손님을 끄는 수단으로 삼았다. 이 책은 약물의 포제 과정이 엄격하지만 약물을 포제하는 목적이 주로 도가를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이 의약가에 끼친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이후 宋代 약물포제 발전과 이 책은 큰 관련이 없다.

7. 『雷公藥性賦』

明代 초기 『醫學源流』에서 雷敷를 三皇시대에 넣어 ‘太乙雷公’으로 명명하고 黃帝시기의 臣인 雷公과 후세의 雷敷를 혼동하여 그가 “著有『炮炙論』, 其序載在本草, 云公姓雷名敷”라 하고 “太乙雷公, 醫藥之宗. 炙煨炮燭,

千古無窮”⁵²⁵⁾ 4구절로 찬양하였다. 明·陳嘉謨의 『本草蒙筌』 앞에 熊宗立의 『歷代名醫圖姓氏』에서 『醫學源流』를 인용하고 太乙雷公의 그림을 넣었다⁵²⁶⁾. 이와 같이 역사적인 인물의 姓氏로 인하여 상고의 성인이 되었다.

明清시기 대부분의 약포에서 ‘雷公炮制’를 표방하지 않은 곳이 없었지만 雷公이 본래 雷敷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고, 더군다나 진정으로 雷公炮炙法에 근거하여 제약한 사람도 없었다. 雷公은 明清 의약계에서 숭배의 초점이 되었다. 明清시기 의서 시장에 넘친 『雷公藥性賦』는 『雷公炮炙論』과는 전혀 무관하다.

『雷公藥性賦』는 민간에서 오랫동안 유전되었다. 그 屬名은 금대 李杲가 저작한 것이라 하였으나 고증에 의하면 이는 탁명이다. 이는 명대 혹은 그 이후에 성서되었고 실제상으로 당시 민간 의생이나 문인들이 문자가 난잡하고 古奧한 의서를 보다 알기 쉽고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 편찬한 일종의 보급성 약학저작이다.

明清 이래로 유전된 이 책의 판본이 많았고, 체례와 형식도 완전히 다르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각종 影印本이나 交點本이 많이 유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초학자들은 이러한 책을 통해 이해하는 의학지식은 3가지 방면의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 첫째, 수록한 약물 기원(어떤 식물, 동물, 광물에서 명확히 기원하였는지)이 분명치 않다. 여기에 수록된 약물 대다수는 오늘날 사용하는 것과 일치하지만 일부 약물의 품종에 변화가 발생하여 어떤 약물은 현대 임상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아 고급의 용약 품종이 다르다. 둘째, 賦體의 문자가 제한되어 있어 원서는 음운에 따르거나 문자를 간략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은 완전하게 개관하지 못하였다. 셋째, 현대적인 임상은 명청시대에 비해 장족의 발전이 있었고 특히 임상응용 방면에 있어서 약물의 적응범위에 뚜렷한 변화가 있었다.

525) 明熊宗立. 名方類證醫書大全 醫學源流.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8. p.2.

526) 明陳嘉謨. 歷代名醫圖姓氏 本草蒙筌.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p.34.

III. 結論

『雷公炮炙論』을 지은 雷斅가 어느 시기 사람인지에 대한 설이 분분하지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볼 때 宋代 蘇頌이 말한 隋代사람이라는 주장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이 책은 일시에 한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최초에는 雷斅가 저작하였으나, 후인이 증보시켜 점차 만들어진 것이다. 『雷公炮炙論』의 原書는 이미 逸失되었고 『證類本草』에 이르러 비로소 이 책을 대량으로 인용하였다.

『雷公炮炙論』의 내용은 炮制加工에 대한 최초의 전문저작으로 오늘날 통용되는 炮制方法이 거의 포함되어 있고, 또한 오늘날에는 사용되지 않는 방법도 있다. 이 외에 이 책은 규정이 자세하고, 범위가 광범하고, 이론적인 틀을 처음으로 구비하고 있다.

이 책은 내용이 풍부하고 여러 가지 炮制方法을 기재 하였고 있다. 그 중에 蒸法, 煮法, 炮法, 炒法, 煨法, 煉法, 燒法, 煨法, 浸法, 洗法, 飛法 등 10여 가지 방법이 있고, 약물에 쓰이지 않는 부위를 제거하고, 약용부위에 따라 분리하며, 분쇄하는 방법, 切制方法, 건조방법, 약을 담는 용기, 炮制의 주의사항, 炮制시간과 약의 양, 약제의 진위와 우열, 부분적인 炮炙理論 등이 저록되어 있다.

『雷公炮炙論』의 내용은 의가, 도가 炮制法의 복합 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후세 의가에서 炮制에 대한 『雷公炮炙論』의 영향은 크지 않았다. 이는 후세의 의가들이 炮制법을 이용한 이유와 도가적 색채가 짙은 본서의 炮制법의 차이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이후 宋代 藥物炮制 발전과 이 책은 큰 관련이 없게 되었다.

明清시기 의서 시장에 넘친 『雷公藥性賦』는 『雷公炮炙論』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이는 명대 혹은 그 이후에 成書된 일종의 보급성 약학저작이다. 그러나 李杲가 지었다는 것도 타명이고, 심오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초학자들이 이런 책을 통해서 의학지식을 접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하겠다.

『雷公炮炙論』은 최초의 전문포제서적으로, 한의학의 역사에서 하나의 학문이 어떻게 발생되었고 발전하였으며, 하나의 책이 어떻게 윤색되고 변형되며 가치가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본보기가 된다고 하겠다.

參考文獻

<논문류>

1. 李秉書, 尹暢烈. 道教醫學에 관한 研究. 대한원전의사학회지 vol. 6. 1992. p.264.
2. 尙志鈞. 中成藥研究. 1982(4). p.46. pp.45~46.
3. 范行准. 中華文史論叢 第六輯 兩漢三國南北朝隋唐醫方簡錄. 香港. 中華書局. 1965. p.325, p.341.
4. 宋大仁, 丘長波. 浙江中醫雜誌. 1957(8). pp.31~32.

<단행본류>

1. 劉祖貽, 孫光榮 主篇. 中國歷代名醫名述. 北京. 中醫古籍出版社出版. 2002. p.155, 156.
2. 南北朝. 雷斅. 雷公炮炙論通解. 西安. 三秦出版社. 2001. p.8, 12, 13, 14, 16, 18, 19, 20, 21, 22, 24, 27, 31, 32, 37, 38, 39, 41, 44, 46, 49, 50, 51, 52, 54, 55, 58, 59, 63, 65, 70, 74, 77, 80, 82, 88, 92, 94, 96, 98, 99, 101, 103, 105, 109, 111, 113, 114, 118, 120, 124, 126, 127, 129, 131, 134, 136, 138, 140, 141, 144, 145, 147, 150, 151, 155, 159, 160, 162, 163, 164, 166, 168, 169, 172, 175, 179, 181, 182, 184, 186, 188, 191, 193, 195, 197, 199, 200, 201, 203, 205, 206, 208, 209, 210, 212, 214, 216, 218, 219, 221, 222, 223, 226, 228, 232, 234, 235, 238, 240, 241, 243, 244, 246, 247, 248, 250, 251, 253, 255, 258, 259, 260, 261, 262, 265, 269, 273, 274, 281, 286, 287, 288, 294, 295, 297, 300, 302, 305, 307, 309, 311, 312, 314, 315, 316, 318,

- 320, 321, 323, 324, 325, 330, 331, 332, 333, 337, 338, 341, 345, 348, 350, 351, 352, 354, 355, 356, 357, 359, 362, 363, 364, 365, 367, 371, 372, 374, 375, 376, 377, 379, 755. pp. 31-32, 51-52, 179-180, 270-271, 274-275, 283-284
3. 한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편. 한의학대사전. 서울. 정담. 1998. p.536.
 4. 孫思邈. 備急千金要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25.
 5. 蘇頌. 本草圖經.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94. p.19.
 6. 張仲景. 敦煌中醫藥全書. 北京. 中國古籍出版社. 1994. p.58.
 7. 東醫學叢書 醫方類聚 卷1. 서울. 麗江出版社. 1991. p.152.
 8. 徐春甫. 古今醫統大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3.
 9. 嚴世藝 主編. 中國醫籍通考 卷1.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出版. 1990. p.1366.
 10. 明熊宗立. 名方類證醫書大全 醫學源流.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8. p.2.
 11. 明陳嘉謨. 歷代名醫閣姓氏 本草蒙筌.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p.34.
 12. 沈括 撰 胡道靜 校注. 新校正夢溪筆談. 香港. 中華書局. 1987. p.328.
 13. 唐慎微 編著.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서울. 大星文化社. 1983. p.33. 41. 89. 104. 290.
 14. 隋書. 北濟書隋書. 서울. 景仁文化社. 1983. p.687.
 15. 李時珍. 中國醫學大系 40卷 本草綱目. 서울. 麗江出版社. 1978. p.772*310. p.772*338.
 16. 葛洪. 葛洪肘後備急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97.
 17. 姚振宗. 續修四庫全書 卷915 隋書經籍志考證.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 p.600.
 18. 李仲梓. 續修四庫全書 卷993 本草通玄.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 p.58.